



발전가능성이 높은 포도시장, 홍콩

홍콩지사

세계 각국 포도가 유입되는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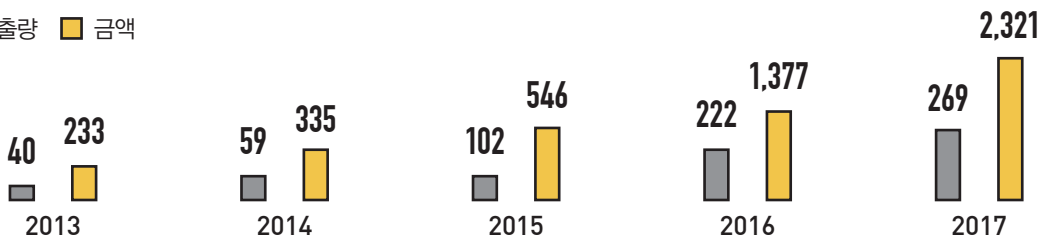
•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과일 수출품목 중 하나가 포도이다. 2017년 기준 수출통계를 보면, 총 1,218톤의 한국산 포도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으며 그중 홍콩 수출량이 269톤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이다.

• 인구가 약 740만 명에 불과한데도 홍콩의 포도수입량이 많은 까닭은, 현지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아 소비에 필요한 모든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역절차도 복잡하지 않아 세계 각국의 포도가 홍콩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2017년 홍콩의 포도 수입 규모는 약 22만 5천 톤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 포도의 홍콩 수출량 및 수출액

(단위 : 톤, 천불)

■ 수출량 ■ 금액



출처 : www.kati.net

일반 포도를 대체해가는 프리미엄 품종

- 홍콩인들은 최근들어 씨 없이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단맛이 강한 한국산 거봉과 샤인머스켓을 많이 찾고있다. 두 품종 모두 고유의 단맛으로 홍콩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 특히 샤인머스켓이 아삭하고 단맛이 짙은 품종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거봉은 일본산·대만산 포도와의 경쟁이 치열한 품종이다. 홍콩의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테이스트'(Taste)에서 판매되는 거봉 한 팩(450g~500g) 가격을 보면, 한국산이 HKD 148(약 21,000원), 일본산이 HKD 238(약 33,000원), 대만산은 HKD 39.9(약 5,500원)로 차이를 보인다. 거봉은 델라웨어나 캠벨 등 일반 포도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 덕분에 앞으로도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씨가 없고 향이 짙은
샤인머스켓,
질병 예방효과가
타고난 거봉



Taste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봉



한국

HKD 148



일본

HKD 238



대만

HKD 39.90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거봉과 샤인머스켓

신품종 개발과 품질관리로 수출시장 확대해야

- 홍콩에서 거봉과 샤인머스켓의 약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씨가 없고 껍질을 통째로 먹을 수 있어 먹기에 편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라는 점이 소비자를 사로잡는 힘이 되고 있다.
- 웰빙 트렌드에 맞추어 고유의 맛이나 건강에 필요한 영양성분 등을 어필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한국산 포도의 우수성을 입증한다면 확고한 위치를 선점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각국 상품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홍콩의 포도시장에서 한국산 포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나, 신품종 개발과 일관된 품질관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홍콩 내 입지가 더욱 커질 것이다. 아울러 홍콩을 기반으로 동남아나 중동까지도 수출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